

교회소식

- ▶ 환영:
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

- ▶ 행사:
05/07/23 (주일): 교회 창립 49주년, 제직회, 남/여선교회 월례회
05/14/23 (주일): 어머니주일

- ▶ 감사:
오늘 친교를 담당해주신 김정목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
- ▶ 합심기도 제목:
 1. 새 가나안 장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
 2. 조성훈장로님: 주의 일을 감당 하실 수 있는 건강주시옵소서
 3. 조정원권사님: 폐렴이 좋아지셔서 양로병원으로 다시 옮기셨습니다.
Camilia Garden care nursing home: Room #: 10C
1920 N Fair Oaks Ave, Pasadena, CA 91103.
건강회복하셔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.
 4. 김왕증: 앞길을 주님께 맡기오니,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
김예림: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고, 산모와 아기(축복)가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
 5. 이윤정권사님: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



지난 주 헌금 드리신 분들	
십일조/주정/주일	이 천, 이크리스틴, 이장욱, 이정혜, 김병권, 김명숙, 하효경, 이윤정, 김정목, 이노엘, 무 명
감사헌금	

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(PCIGA) 새 가나안 장로교회 NEW CANAAN PRESBYTERIAN CHURCH	6338 N. Figueroa St. Los Angeles, CA 90042 ☎ (323) 256-7575
<h3 style="margin: 0;">담임목사: 이 천</h3>	
시무장로: 조성훈 이장욱 반주: 김진경	

주일 예배

교독문 78. 요한복음14장

12:30 PM

인도: 이 천 목사

경배와 찬양		다함께
기원		인도자
※찬송	528 (통 318장)	다함께
※성시교독	교독문 78. 요한복음14장	다함께
※신앙고백	사도신경	다함께
찬송	411장 (통 473장)	다함께
대표기도		하효경집사
오늘의 말씀	요한복음 21:5~11	인도자
찬양		김병권/김명숙집사
설교	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	이 천목사
기도		설교자
헌금		이정혜권사
※봉헌찬송	634장 (통 70장)	다함께
※봉헌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※인사		다함께
※찬송	54장 (통 61장)	다함께
※축도		이 천목사

※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

봉사와 섬김					
#	구분	대표기도	찬양	헌금위원	친교
18	04/30/23	하효경	김병권/김명숙	이정혜	김정목
19	05/07/23	이장욱	다같이	하효경	교회(창립 49주년)
20	05/14/23	김병권	이장욱	하효경	
21	05/21/23	이정혜	하효경	김명숙	
22	05/28/23	하효경	김병권/김명숙	이정혜	
23	06/04/23	김명숙		하효경	

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

◎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

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

◎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

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

◎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

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

◎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아멘

성경말씀: 요한복음 21:5~11

-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
-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
-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
-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
-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
-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
-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헌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. 아멘